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11. 30. ~ 12. 6.

전남농업정보

62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토마토 · 수박 11~12월 정식 의향

농작물 출하 및 가격 동향

양념채소 · 과일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광양시,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 준공
화순군,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 “효과 좋네”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국화 생산비절감 양액재배 매뉴얼 발간
천궁, 파종 시 미리 기후 조건 확인해야

정책 동향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기간 연장
전남농업 6차산업 체험관광 활성화 나선다.

해외 농업정보

일본, IT기술 활용한 토마토 생산 효율화 실시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1. 30.(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라남도
JeollaNamdo

❀ 주간 기상전망 8

- 기압골의 영향으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눈 또는 비가 오겠음.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4도, 최고기온 : 9~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 11

- 토마토, 11~12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 수 박, 11~12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12

▶ 양념채소 : 마늘 · 대파

- 마늘 : 전월의 산지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어 10월
(5,191원/kg) 대비 강보합세가 전망
- 대파 : 1,400~1,700원/kg으로 10월(상품 1,565원) 대비 보합세가 전망

▶ 과 일 : 감귤 · 단감

- 감귤 :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200~1,400원/kg으로 전망
- 단감 : 전년(1만 4천원)과 비슷한 13,000~15,000원/상품 10kg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3

- ▶ 광양시,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 준공
- ▶ 광양시, 양채류 농산물 품목별 규모화 및 기업화 공모사업 선정
- ▶ 담양군 양정자 씨,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임업분야에서 '대상' 수상
- ▶ 화순농업 이끌 농업전문 핵심인력 73명 배출
- ▶ 화순군,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 "효과 좋네"
- ▶ 보리, 귀리 등 맥류 습해 예방하세요
- ▶ 완도군 자연그대로 유기농 거점마을 육성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1

- ▶ 전남산 골드키위 '해금' 일본 첫 수출길
- ▶ 담양 대숲맑은 유기농쌀 미국 식탁에 오른다.
- ▶ 이동필 장관, 쌀소비 활성화 및 수출 농산물 생산현장 등 방문
- ▶ 2016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 한국 인천총회 개최 확정으로 한국 종자의 수출 확대 교두보 마련!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6

- ▶ 국화 생산비절감 양액재배 매뉴얼 발간
- ▶ 땅끝포크 브랜드...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위한 도약
- ▶ 천궁, 파종 시 미리 기후 조건 확인해야
- ▶ 버려지는 산업폐열 농업 활용 길 열린다.
- ▶ 우리 기후 잘 맞는 오차드그라스(풀사료) 새 품종 개발
- ▶ 뿌리부추, 혼합부직포 피복 기술 개발
- ▶ 국산 파프리카 시대 온다!
- ▶ 소득안정 작목은 느타리버섯

❁ 정책 동향 37

- ▶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기간 연장
- ▶ 전남농업 6차산업 체험관광 활성화 나선다.
- ▶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 134억원 지급
- ▶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 「창조농업관」 운영

- ▶ 일본, IT기술 활용한 토마토 생산 효율화 실시
- ▶ 프랑스 식품기업, 노년층 위한 다양한 식품 출시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1. 30.(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추수감사절로 인한 짧은 거래기간과 달러화 강세, 다음 주 많은 거래 예상으로 하락 마감함. USDA는 주간 미국 밀 판매가 303,700톤으로 예상했던 40~60만톤 보다 하락하는 수준이라고 전함.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주간 예상보다 많은 200만톤 이상이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함.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밀과 옥수수가격의 하락, 기술적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 마감함. USDA는 2015/16년 생산 대두 수출 주간 판매에 대해 1,173,600톤이 판매 되었으며 예상했던 100~150만톤 수준이라고 전함.

▶ 우리 농산물 이름짓기

- 공모기간 : 2015. 11. 25.(수) ~ 12. 4.(금) 18:00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공모분야 : 벼, 고구마
- 참여방법 : 온라인 활용 접수
- 결과발표 : 12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시상내역 : 최우수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1. 30.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30)	1주일전 (1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7,000	37,000	36,750	41,625	42,128	↓11.1	↓12.2
	콩(백태)	35kg	147,400	146,400	143,700	140,000	189,200	↑5.3	↓22.1
	고구마(밤)	10kg	21,800	21,400	21,800	19,400	22,120	↑12.4	↓1.4
	감자(수미)	20kg	25,400	25,400	24,900	20,400	27,400	↑24.5	↓7.3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530	510	-	390	667	↑35.9	↓20.5
	양배추	10kg	4,100	4,000	4,025	4,400	6,380	↓6.8	↓35.7
	오이(다다기계통)	10kg	55,667	44,333	20,167	26,444	26,867	↑110.5	↑107.2
	애호박	8kg	31,800	26,600	15,950	18,600	19,007	↑71.0	↑67.3
	토마토	10kg	17,200	16,800	17,300	24,200	27,320	↓28.9	↓37.0
	무(가을)	20kg	10,000	9,100	-	9,520	11,533	↑5.0	↓13.3
	당근	20kg	26,400	27,600	27,700	16,000	26,677	↑65.0	↓1.0
	건고추(화건)	60kg	806,000	806,000	816,000	860,000	920,000	↓6.3	↓12.4
	풋고추	10kg	32,600	35,200	26,550	66,000	51,960	↓50.6	↓37.3
	마늘(난지)	10kg	56,000	56,000	55,000	33,800	36,767	↑65.7	↑52.3
	양파	20kg	34,200	33,800	28,550	10,400	17,540	↑228.8	↑95.0
	대파	1kg	2,250	1,980	1,670	1,060	1,571	↑112.3	↑43.2
	파프리카	5kg	18,600	13,400	13,000	20,150	24,730	↓7.7	↓24.8
	방울토마토	5kg	9,600	10,000	10,200	12,500	16,607	↓23.2	↓42.2
	수박	1개	13,400	10,200	7,750	7,900	10,397	↑69.6	↑28.9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34,800	34,600	-	36,133	47,529	↓3.7	↓26.8
	배(신고)	15kg	43,600	41,800	38,500	33,350	41,683	↑30.7	↑4.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30)	1주일전 (1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4,000	534,000	530,000	514,000	558,333	↑3.9	↓4.4
	들깨	45kg	418,000	418,000	418,000	413,000	389,600	↑1.2	↑7.3
	새송이버섯	2kg	8,400	8,200	8,250	6,800	8,160	↑23.5	↑2.9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95	7,723	7,741	6,704	6,456	↑16.3	↑20.7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32	1,896	1,709	2,120	1,796	↓4.2	↑13.1
	닭고기	1kg	5,209	5,023	5,169	5,247	5,453	↓0.7	↓4.5
	계란(특란)	30개	5,493	5,557	5,635	5,927	5,617	↓7.3	↓2.2
	우유	1리터	2,550	2,550	2,550	2,546	2,384	↑0.2	↑7.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1. 30.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987 천원	5,844 천원	4,520 천원	↑ 2.4	↑ 32.5
	거세	6,566 "	6,580 "	5,323 "	↓ 0.2	↑ 23.4
송아지 (6~7월)	암	2,460 "	2,519 "	1,851 "	↓ 2.3	↑ 32.9
	수	3,172 "	3,164 "	2,454 "	↑ 0.3	↑ 29.3
육우(600Kg)		3,220 "	3,365 "	3,302 "	↓ 4.3	↓ 2.5
젖소수송아지(7일령)		272 "	280 "	37 "	↓ 2.9	↑635.1
돼지(110kg)		352 "	372 "	438 "	↓ 5.4	↓ 19.6
육계(원/kg)		1,413 원	1,391 원	1,790 원	↑ 1.6	↓ 21.1
계란(원/특란10개)		1,083 "	1,109 "	1,432 "	↓ 2.3	↓ 24.4
오리(원/kg)		2,166 "	2,166 "	2,16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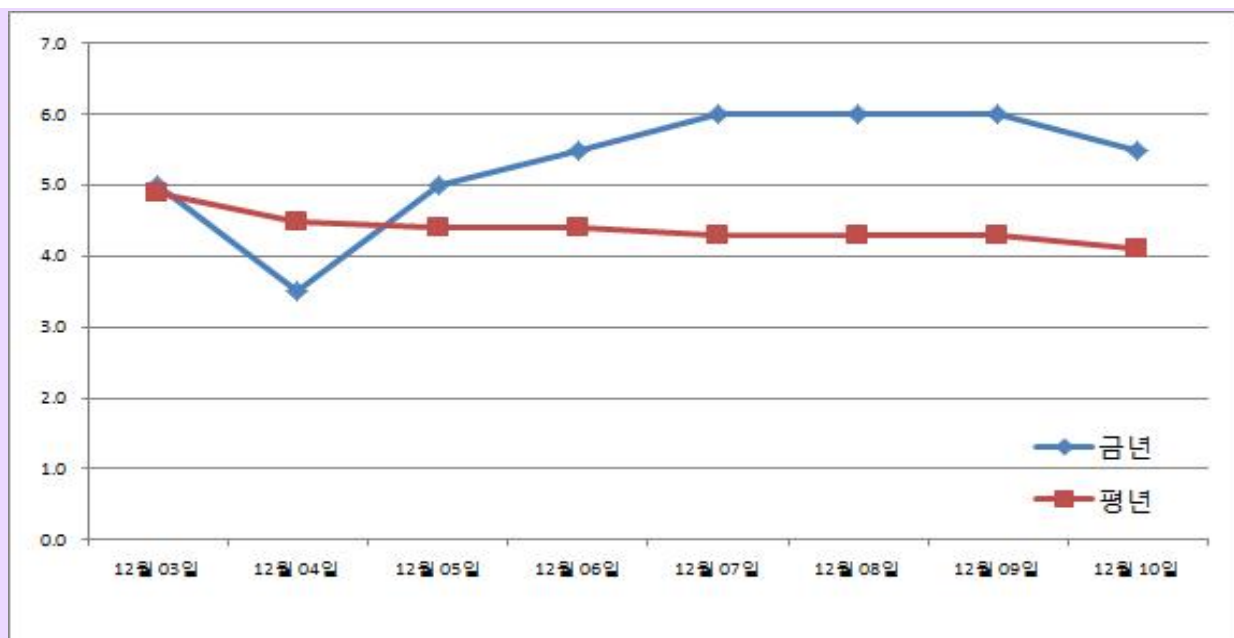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계)	5.3	4.4	0.9	8.6	9.5	-0.9	2.0	0.2	0.0	1.6
12. 3.(목)	5.0	4.9	0.1	6	10.3	-4.3	4	0.6	-3.4	1.5
12. 4.(금)	3.5	4.5	-1.0	5	9.9	-4.9	2	0.2	-1.8	1.9
12. 5.(토)	5.0	4.4	0.6	8	9.6	-1.6	2	0.2	-1.8	1.9
12. 6.(일)	5.5	4.4	1.1	9	9.5	-0.5	2	0.2	1.8	1.9
12. 7.(월)	6.0	4.3	1.7	10	9.3	0.7	2	0.1	1.9	1.7
12. 8.(화)	6.0	4.3	1.7	11	9.2	1.8	1	0.2	0.8	1.7
12. 9.(수)	6.0	4.3	1.7	11	9.1	1.9	1	0.3	0.7	1.3
12. 10.(목)	5.5	4.1	1.4	9	9	0	2	0	2	1.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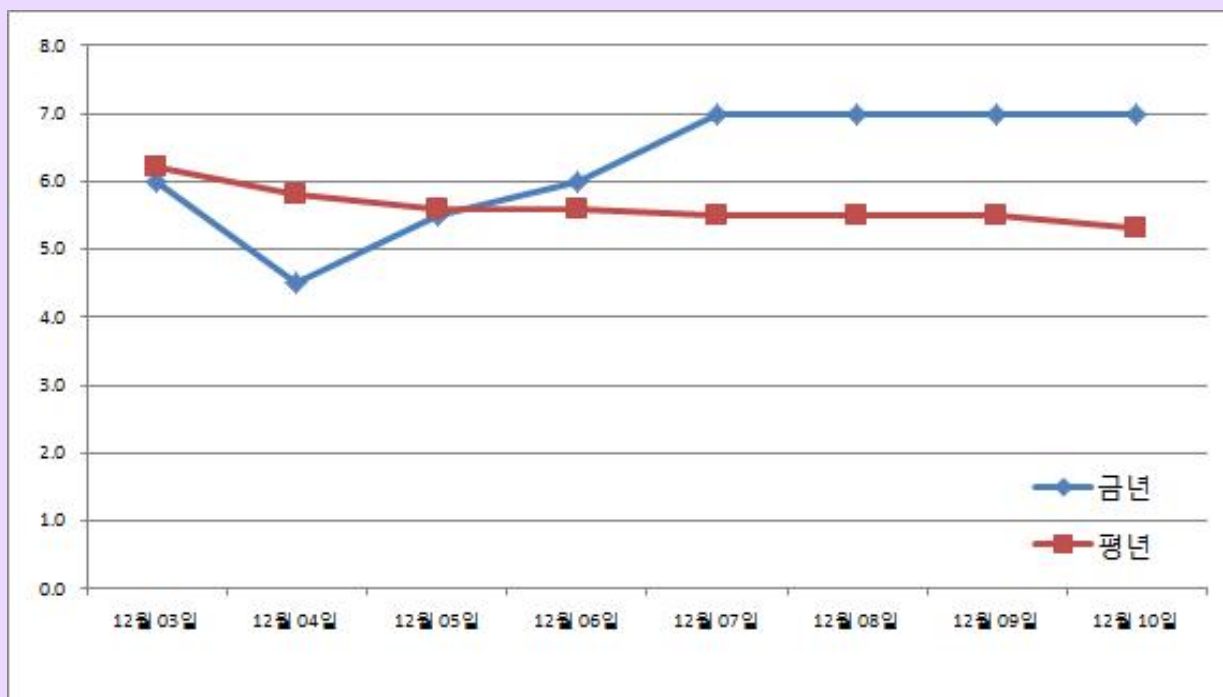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계)	6.3	5.6	0.6	9.4	10.4	-1.0	3.1	1.9	0.1	1.5
12. 3.(목)	6.0	6.2	-0.2	7	11.1	-4.1	5	2.4	-2.6	1.4
12. 4.(금)	4.5	5.8	-1.3	6	10.7	-4.7	3	2	-1	1.8
12. 5.(토)	5.5	5.6	-0.1	8	10.4	-2.4	3	1.9	-1.1	1.9
12. 6.(일)	6.0	5.6	0.4	9	10.3	-1.3	3	1.8	1.2	1.9
12. 7.(월)	7.0	5.5	1.5	11	10.2	0.8	3	1.8	1.2	1.4
12. 8.(화)	7.0	5.5	1.5	12	10.2	1.8	2	1.8	0.2	1.5
12. 9.(수)	7.0	5.5	1.5	12	10.1	1.9	2	1.8	0.2	1
12. 10.(목)	7.0	5.3	1.7	10	9.9	0.1	4	1.6	2.4	0.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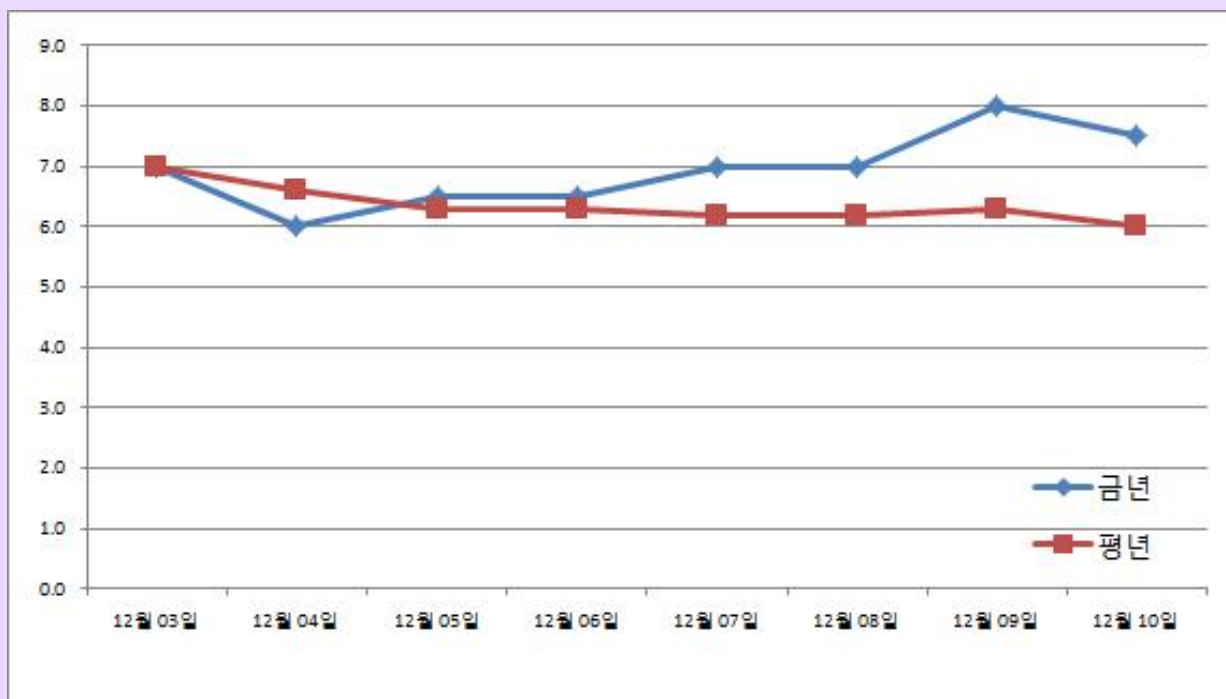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계)	6.9	6.4	0.6	9.5	10.4	-0.9	4.4	3.0	0.0	1.0
12. 3.(목)	7.0	7.0	0	8	11	-3	6	3.6	-2.4	0.9
12. 4.(금)	6.0	6.6	-0.6	7	10.6	-3.6	5	3.1	-1.9	1.4
12. 5.(토)	6.5	6.3	0.2	9	10.4	-1.4	4	2.9	-1.1	1.4
12. 6.(일)	6.5	6.3	0.2	9	10.3	-1.3	4	2.9	1.1	1.2
12. 7.(월)	7.0	6.2	0.8	10	10.1	-0.1	4	2.9	1.1	0.9
12. 8.(화)	7.0	6.2	0.8	11	10.2	0.8	3	3	0	1
12. 9.(수)	8.0	6.3	1.7	12	10.2	1.8	4	3.1	0.9	0.5
12. 10.(목)	7.5	6.0	1.5	10	10	0	5	2.8	2.2	0.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토마토 · 수박 재배 동향

□ 토마토, 11~12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 내년 1월 정식면적은 금년 1월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식이 이루어지겠으나, 정식 비중이 높은 충남 부여에서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일반토마토로 작목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박, 11~12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 11~12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일부 10월로 정식을 앞당긴 농가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 정식지인 영남지역의 변화가 없어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 내년 1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주산지에서의 면적 변화가 작아 금년 1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양념채소 : 마늘 · 대파

○ (마늘)

- 11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은 전월의 산지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어 10월(5,191원/kg) 대비 강보합세가 전망

○ (대파)

- 11월 대파 도매가격은 1,400~1,700원/kg으로 10월(상품 1,565원) 대비 보합세가 전망
- 11월 가격은 강원지역 대기물량 출하가 집중되어 전월 대비 보합세가 전망. 그러나 고랭지대파 출하가 조기 종료되고, 주산지 이동에 따른 출하 공백이 있을 경우 중순부터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과 일 : 감귤 · 단감

○ (감귤)

- 11월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200~1,400원/kg으로 전망

○ (단감)

- 11월 부유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소폭 감소하지만, 사과, 포도, 토마토, 딸기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1만 4천원)과 비슷한 13,000~15,000원/상품 10kg으로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광양시,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 준공

-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판매 기반 구축 -
- 연간 300톤 소포장 친환경농산물 판매, 연간 8억 원 매출 기대 -
- 광양시는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이 준공되어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시는 27일 광양읍 우산리 계곡마을 입구에서 박말레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광양원예농협 임원 및 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 이번 선별장은 광양원예농협이 보조 3억 원, 자부담 2억 25백만 원 등 총 5억 2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908㎡ 부지에 농산물 공동선별장(670㎡)과 저온저장고(71㎡)의 시설을 갖춘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이다.
- 그동안 광양원예농협은 약 110ha에서 애호박, 매실,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시설을 갖추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번 사업으로 광양원예농협은 매실 150톤, 애호박 150톤 등 연간 300톤의 친환경농산물을 다양한 소포장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인증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여 연간 8억의 매출로 농가소득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태옥 친환경농업팀장은 이번 유통시설 준공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보다 상품성 있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광양시, 양채류 농산물 품목별 규모화 및 기업화 공모사업 선정

-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생산·유통 기반 활성화 -
 -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유통시설 건립, 저온수송차량 지원 -
-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농산물 품목별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에 신선 양채류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디딤돌(영)이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사업비 4억 원(보조 2.4, 자부담 1.6)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83㎡), 선별장(183㎡) 등의 유통시설을 건립하고 저온수송차량 1대(4.5톤)을 지원하여 유통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유통시설과 장비지원으로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는 물론 생산·유통 기반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호 매실원예과장은 최근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과 간식을 원하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신개념 식품인 양채류를 새로운 특화 소득 작물로 육성시키고자 이번 공모 사업에 신청하게 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의 소득 창출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광양시에서는 140농가, 121ha에서 양채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진월면 송금, 월길지구에서는 양질의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 일찍부터 결구상추 등 시설채소가 발달했다.
- 그러나 양채류는 출하량에 따라 가격의 등락폭이 매우 크고 재배하는 농가의 규모가 영세하여 계획 생산과 계통출하를 하고 있지만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규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출처 : 광양시

■ 담양군 양정자 씨,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임업분야에서 ‘대상’ 수상

- 전국 최초 숯공예가 양정자 씨, 대숯을 활용한 공예기술 인정 -
- 2015년 한 해 동안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을 선정하는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에서 담양군 양정자 씨가 임업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담양군은 최근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양정자 씨(73세, 담양읍)가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농업인대상은 고소득 쌀 생산 분야와 원예특용작물 분야, 유통가공 분야, 축산 분야, 임업 분야, 농산물수출 분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각 시군의 추천을 받은 후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엄격한 현지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 이번에 임업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양정자 씨는 대나무 부존자원인 대숯을 공예기술과 접목해 숯공예로 발전시킨 공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대나무 고장의 명성을 한번 더 드높였다.
- 양정자 씨는 1975년 꽃공예에 입문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숯공예가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특히 담양의 특산물인 대나무를 활용한 공예를 발굴하고자 대숯을 이용해 각종 예술 창작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를 생활용품에 접목시키는 등 대숯 활용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에, 지난 2004년에는 행정자치부 숯공예 신지식인, 2006년 사) 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 꽃·숯공예 대한명인, 2012년 담양군 대나무 공예명인 제19회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양정자대숯공예전시체험관을 운영하며 대학교 및 문화센터에서 숯공예 전문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 이 밖에도 지난달 성공리에 막을 내린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주제전시관에 대숲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양군만의 다양하고 차별화 된 임업기술을 적극 발굴·양성해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나갈 뿐만 아니라 임업인의 소득향상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담양군

■ 화순농업 이끌 농업전문 핵심인력 73명 배출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에서 핵심인력 73명이 배출됐다.
-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8기 농업인 대학 졸업식에서 친환경농업과, 농업전문(토마토)과 2개 과정 73명이 학사모를 썼다.
- 박봉순 부군수는 축사에서 “지금 농업은 시장개방과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화순군 농업 명품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농업인대학은 과정별 특성에 따라 각각 23회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론과 현장 강의, 벤치마킹 등 과정별로 총 100시간씩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날 졸업식에서 친환경농업과 주우희(남면)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농업전문(토마토)과정 양이원(한천면)씨가 군수표창을 받았다.
- 또한 우수상 김전곤(남면), 손일임(화순읍), 김창호(도곡면)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 졸업생 양이원(한천면, 46)씨는 졸업 소감 발표에서 “2014년 귀농 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웃 농가들을 따라 재배하는 수준에서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토마토 생리를 알고 재배 현장에 적용해보니 토마토 생육과 수확이 늘었다.”며 “교육 과정을 개설해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출처 : 화순군

■ 화순군,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 “효과 좋네”

- 축사 내 악취 감소 및 작물 생육에 효과적,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농업 환경 개선 및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유용미생물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을 개선해 작물에 양분 흡수율을 높일 뿐 아니라 미생물제에 포함된 각종 유기산과 비타민들이 작물에 흡수되어 작물 생육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 또한 축사 내 악취감소, 사료 효율개선, 항생제 대체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 이에 따라 군은 생산 인력을 보강, 관내의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환경과 시기에 적합한 유용미생물을 확대 공급해 화순군의 친환경 농업 발전과 명품 농산물 생산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재 화순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은 유산균, 고초균, 효모, 광합성균 4가지 종류이며 작물에 이용 시 500배로 희석해 관주 처리하며, 가축에는 음용수에 혼합급여하고 축사 내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등에 뿌려주면 된다.

- 
- 유용미생물을 꾸준히 사용해온 최덕기(화순읍 앵남리)농가는 “미생물을 사용한 후부터는 축사 내 악취는 물론 가축 면역력이 강해져 항생제 사용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미생물을 꾸준히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용미생물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교육과 서류 절차를 거치면 무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친환경작물담당(379 - 5411~5)에 문의하면 된다.
 -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유용미생물 사용은 사료비 절감뿐 아니라 토랑개량과 병해충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해 지역 환경보존과 화순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출처 : 화순군

■ 보리, 귀리 등 맥류 습해 예방하세요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잦은 강우 대비 맥류 관리요령 안내 -

- 전남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한 맥류 습해 방지와 함께 월동 전 맥류 동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에 나섰다.
- 농업기술센터 분석 자료에 의하면 맥류 파종 후 10월 말 ~ 11월 중순까지 이상 고온 현상과 잦은 강우로 보리, 귀리 등 맥류가 웃자라고 습해가 발생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습해가 발생한 필지는 앞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동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농작물 관리가 요구된다.
- 맥류는 10월 중·하순경 파종하여 월동 전에 잎이 3~6개 정도 나와야 안정적으로 월동이 가능하고 이삭이 나올 수 있는 줄기

확보에 유리하여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배수가 불량하거나 파종 후 강우로 인해 배수로를 만들지 못하면 뿌리 활력이 저하되어 결국 월동기간 동안 얼어 죽게 된다.

- 따라서 습해가 예상되는 필지에서는 물이 고인 배수로 정비를 신속히 해야 하고 잎이 노랗게 고사하게 되면 요소 2%를 10a(300평) 당 100L씩 2~3회 나누어 뿌려주워 생육을 회복시켜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김순옥 작물연구팀장은 “맥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빠짐을 위한 배수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특히 지금처럼 잦은 강우로 뿌리 활력이 떨어져 황화현상이 발생하는 필지는 월동 전에 반드시 배수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강진군

■ 완도군 자연그대로 유기농 거점마을 육성

- 4년 동안 총 8개소 ‘유기농 거점마을’로 지정 육성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매년 2개소씩 4년 동안 총 8개소를 ‘유기농 거점마을’로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완도 자연그대로 유기농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사업주체의 자연그대로 농업 실천과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20ha이상의 무농약 인증 획득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 3년 동안 친환경 농자재 및 농기계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 완도군은 지난 7월 고금면 청학마을을 거점마을로 지정해 유기질 비료 및 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법 전수, 자연그대로 농업 교육 등 마을별 3개년 육성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난 18일에는 추가 지정을 신청한 군외면 망죽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자연그대로 농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군외면 망죽마을은 벼, 마늘, 비파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완도군 전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중 26%를 차지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자연그대로 농업 마을이다.
- 군은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유기농 거점마을로 망죽마을이 지정되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규모화와 조직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고소득 농촌마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완도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산 골드키위 ‘해금’ 일본 첫 수출길

- 24일 12t 선적, 내년 2월까지 50t 30만 달러 규모 예정 -
- 전라남도는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가 개발 보급한 전남산 골드키위 ‘해금’이 24일 일본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 이날 첫 수출 선적분은 12t으로, 출하 시기인 내년 2월까지 30만 달러 규모인 50t을 수출할 예정이다.
- 해금의 첫 일본 수출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일본 수입사인 인팜 코퍼레이션(Infarm Corporation)이 지난해 10월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서 수출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
- 인팜 코퍼레이션은 일본 내 4개 지사, 3천 600여 매장을 보유,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 이 지사는 이날 순천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수출 기념행사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수출 길에 오르게 된 것은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농산품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며 “농업인은 신용을 생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해금’ 생산자와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를 격려했다.
- ‘해금’은 현재 해남, 고흥, 장흥 등 도내 7개 시군 150ha의 면적에 40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천t에 달한다.
- 맛과 당도가 뛰어나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앞으로 시장 진출 전망이 밝아 농가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담양 대숲맑은 유기농쌀 미국 식탁에 오른다.

- 전남도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으로 H-mart 통해 첫 수출길 -

- 전라남도는 담양군의 대표 브랜드쌀인 대숲맑은 유기농쌀이 미국 대형 유통점인 H-mart를 통해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 담양 금성농협이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개별 바이어 초청 사업을 활용해 계약을 성사한 것이다. 수출량은 2톤에 불과하지만 현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점인 H-mart를 통해 수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번 쌀과 함께 선적되는 수출품은 담양의 한과, 장류 등 전통식품도 포함되며, 12월 중순부터 미국 H-mart 주요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판매와 동시에 담양군과 금성농협 등 수출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판촉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 장수철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최근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양 유기농 쌀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벼 재배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출길이 열린 중국 등 다양한 시장을 상대로 공세적 해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이동필 장관, 쌀소비 활성화 및 수출 농산물 생산현장 등 방문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1월 28일(토), 오전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쌀소비 활성화 현장인 배상면주가 업체와, 경기도 구리시 소재 관상용 다육식물 수출 현장인 영농법인 지양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 자리에서 “쌀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우리 쌀도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변신하고, 다육식물의 신품종 개발 및 품종개선 등 품종 경쟁력 제고와 규모화를 통해 차세대 수출전략으로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엑스로 이동하여(14:20) 2015 창조경제박람회 전시관(창조농업관(농식품부), SK전시관, 비타민프로젝트 전시관)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동필 장관은 창조농업관 내 전시되어 있는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우수 아이템, 6차산업 우수사례 및 한국형 스마트 팜을 관람하고,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 수상한 ‘꼬마감자’(농업회사법인 룡야 권민수 대표)의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 설명을 들은 후 “앞으로 새로운 상품 개발과 함께 시장개척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2016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 한국 인천총회 개최 확정으로 한국종자의 수출 확대 교두보 마련!

□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우리 종자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내종자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5.11.16.~11.20. 5일간 인도 고아에서 개최된 2015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PSA) 총회에 참석, 지난 11월 20일 2016년 APSA 총회를 한국 인천에서 개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APSA는 Asia & Pacific Seed Association(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의 약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량종자 생산 및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47개국 590회원으로 구성, 한국은 19개 종자회사가 가입함.



■ APSA 종자총회는 채소종자산업 관련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서, '2016 APSA 한국 인천총회'는 2016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국립종자원과 (사)한국종자협회가 주관한다.

○ 본 행사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47개국의 1,200여명의 종자바이어가 참석할 예정으로, 전시부스 및 수출입 상담테이블 운영 등을 통해 계약체결 및 신규 거래처 탐색, 채종위탁지 선정 등 실질적인 종자세일즈의 현장이 될 것이다.

○ 특히 2016년은 '12년부터 시작된 골든시드프로젝트(GSP)의 제1단계 사업성고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해로서, 우리의 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종자를 홍보함으로써 국내 종자산업 분야 인프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GSP : 수출전략 및 수입대체형 품종 육성을 위한 R&BD 프로젝트, 품목별 5개 사업단 구성, 10년간('12~'21) 4,911억원 투자

■ 한편, 이번 인도 고아총회에는 13개 국내 종자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50개국 1,000명의 외국 바이어와 수출 상담 및 계약체결 활동을 추진하였다.

○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총회에 참석한 국내 종자업체 및 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6년 한국 인천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 아·태지역은 물론 세계 종자시장 및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향후 종자산업 발전대책

및 2단계 GSP 사업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참가자(60명) : 14개 종자업체 및 GSP 채소사업단, 종자협회 등

* 국내 참석자 현황 : ('12.2) 42명 → ('12.11) 60 → ('13) 75 → ('14) 60 → ('15) 60

□ 국립종자원과 한국종자협회는 2016 APSA 한국 인천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한국관광공사, GSP 사업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 중국 광둥 종자박람회 등 국외 주요 종자관련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전개하면서 한국 인천총회가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립종자원은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SA 종자총회'를 전 세계 종자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 종자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場으로 활용함으로써, 「2020 종자산업육성계획」의 종자수출 2억불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국화 생산비 절감 양액재배 매뉴얼 발간


- 국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매뉴얼 발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화훼 산업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국화 생산을 통한 화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 동안의 연구 결과와 국내 · 외 자료를 정리하여 「국화 양액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한다.
- 국화는 우리나라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화훼 작물로 489ha가 재배되고 전남은 44ha로 전국 재배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국화의 수입 증가와 엔화 하락에 따른 일본 수출 경쟁력이 약해져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양액재배 기술은 국화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기술로서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국화 양액재배 기본 이론과 양액재배에 이용되는 주요 품종의 특성 및 양액 재배 현장 활용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이번 매뉴얼 발간은 국화 양액재배의 품종 선택, 양액 관리기술, 생리장해 및 병해충 방제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출 규격품 생산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연구사는 “국화의 양액재배 기술을 비롯하여 수국, 장미 등 전남의 주요 화훼류의 고품질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농가에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땅끝포크 브랜드...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위한 도약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해남 땅끝포크영농조합법인과 MOU 체결 -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해남돼지고기 대표 브랜드인 땅끝포크가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획득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 땅끝포크영농조합법인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11월 13일(금)에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관리통합인증 기반 조성을 위해 MOU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 이날 MOU 체결식에는 인증원장과 땅끝포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해 브랜드농가 회원들, 해남군농업기술센터, 해남군 축산진흥사업소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약21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보다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땅끝포크영농조합법인이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인증원은 땅끝포크조합의 HACCP 특별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HACCP 관리 전담 심사관 배정 및 교육·기술지원, HACCP 인증 심사 수수료 감면,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 등을 적극 실시한다.
- 땅끝포크영농조합법인도 HACCP 전담조직 구성, HACCP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교육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한다.
- 김진만 인증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평가한 결과, 농장, 가공·유통분야에서 HACCP인증 업소수와 브랜드 매출액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땅끝포크조합도 통합 인증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획득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국 최고의 돼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 서정훈 대표도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만족하는 땅끝포크가 되기 위해서는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HACCP 유통망을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돼지를 찾아 드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 천궁, 파종 시 미리 기후 조건 확인해야

- 여름철 기온 30℃ 이하 서늘할 때 잘 자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약용 작물 천궁이 기후 조건에 민감해 온도가 높으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파종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근 천궁이 소득 작목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많지만 생육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천궁의 국내 주요 재배 지역은 경북 영양, 충북 제천, 경북 상주, 강원 평창 등 해발 고도가 400m 이상인 지역이므로 이보다 온도가 높으면 장애를 입을 수 있다.
-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철 기온이 30℃ 이하인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여름철에 30℃~32℃의 조건이 지속되면 잎이 노랗게 변하며 극심한 생육 부진을 겪거나 죽게 된다.

- 올해 6월과 10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천궁의 자람을 조사한 결과, 주산지인 경북 영양은 수확량과 자람 상태 모두 양호했다. 그러나 제주는 재배 지역 온도가 주산지보다 높아 여름철 집중 폭우와 고온 피해를 입어 잘 자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천궁은 봄과 가을에 모두 심을 수 있는데, 가을에 아주심기를 하면 봄철 생육이 빨라 고온에 강하고 수량도 많이 나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가을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싹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얼음이 얼기 전에 심는 것이 좋다. 또한, 물빠짐이 좋지 않으면 어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토양은 사양토와 양토에서 잘 자란다. 사질토에서 재배하면 올해처럼 가물 때는 피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관수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여름철 고온 피해를 줄이려면 이 시기에 검정 비닐 대신 표면이 흰색인 흑백비닐로 덮어주면 도움이 된다. 흰색은 빛 흡수를 떨어뜨려 표면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여름철 복사열로 인한 고온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 천궁은 조선시대부터 당귀와 함께 부인병 질환에 가장 많이 쓰던 약초로,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성 식품에도 쓰이는 주요 약용 작물 중 하나다. 한방에서는 혈액 순환 개선이나 두통, 어지럼증, 생리불통 치료에 사용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김용일 농업연구사는 “천궁은 기후에 따라 작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민감한 작물로, 토양 선정과 관수, 피복재 선택 등 미리 지역과 토양 조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안정적인 재배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버려지는 산업폐열 농업 활용 길 열린다.

- 농촌진흥청, 농업 활용 가능 산업폐열 분포 지도·활용 모델 개발 -
- 버려지는 산업폐열을 온실의 냉·난방이나 농산물 건조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설계 모델이 마련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폐열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 모델 6종'을 개발했다.
-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폐열은 발전소의 온배수열,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열, 일반 산업체의 폐열 등이다.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인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폐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산업폐열 분포 지도에는 공공성이 강한 발전소 22개소, 쓰레기 소각장 41개소, 일반 산업체 3개소 등 총 66개소의 산업폐열 발생 업체가 표시돼 있다.
- 우선, 원하는 지역(도)을 클릭하면 그 지역에서 산업폐열이 발생하는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일반 산업체의 위치가 표시된다.
- 여기에서 원하는 산업폐열 발생 업체를 클릭하면 위치 정보와 함께 월별 또는 연간 폐열 발생량, 거리별 인근 농지 면적, 작물 정보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 함께 개발한 산업폐열 활용 모델은 산업폐열의 종류와 활용 분야에 따라 발전소-온실, 발전소-건조, 발전소-주택, 소각장·제조업-온실, 소각장·제조업-건조, 소각장·제조업-주택 등 6종류다.
- 사용자가 산업폐열의 종류와 활용 분야를 선택한 후 온도 등 필요한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난방이나 건조에 필요한 기초적인

설계값이 산출된다.

- 예를 들어, 발전소-온실을 클릭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발전소의 겨울철 최저 온배수 온도와 최저 온배수량, 난방 하고자 하는 온실 온도와 면적, 지역 최저 외기온 등을 입력하면 난방 가능한 온실 면적과 최대 난방부하, 히트펌프와 축열조 용량, 열교환기 길이 등 설계값이 나온다.
- 또한, 발전소에서 온실까지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린 계통도를 제공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폐열의 분포 지도’와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 모델’은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 시설 등의 난방을 위한 설계 기준으로 사용하면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 사업 등을 계획할 수 있어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산업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화력발전소 폐열(온배수열)을 활용한 온실난방시스템(장치)’을 개발해 서귀포 망고 재배 영농 조합에 설치한 바 있으며, 이 장치로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20℃~30℃의 온배수열을 흡수한 다음 히트펌프로 온도를 끌어올려 40℃~50℃의 물을 탱크에 저장했다가 온실 난방에 활용한다. 이 장치를 사용한 결과, 유류를 사용할 때보다 난방비를 89% 절감했으며, 난방도 가능해 망고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다른 농가보다 30%의 추가 이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강연구 농업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산업폐열 분포 지도와 활용 모델’은 정부3.0과 부처 협업과제로 이룬 성과다.”라며, “앞으로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돼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줄고 높은 소득을 올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우리 기후 잘 맞는 오차드그라스(풀사료) 새 품종 개발


- 생산성 우수...10만 헥타르 조성 시 한 해 70만 톤 건초 생산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잘 적응하고 생산성이 우수한 산지생태용 풀사료 오차드그라스 ‘온누리 2호’와 ‘럭키원’을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은 날로 늘어가는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친환경 유기 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 초지 풀사료 새 품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온누리 2호’와 ‘럭키원’은 수입 품종과 달리 장마 등으로 무덥고 습한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에 잘 적응한다.
- 생산성도 우수하다. 중생종인 ‘온누리 2호’는 건물 생산량이 1ha당 1만 5,814kg이고, 조생종인 ‘럭키원’은 1ha당 1만 6,191kg으로 수입 품종에 비해 평균 36% 많았다.
- ‘온누리 2호’와 ‘럭키원’은 종자 보급의 첫 단계인 품종 보호를 출원한 상태이며, 2016년 기술이전을 추진해 2018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이들 품종을 활용하면 초지 생산성 향상과 초지 면적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지 10만ha를 조성했을 때 한 해 70만 톤 건초 생산과 47만 톤의 배합사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산지초지 조성에는 톨페스큐, 오차드그라스, 티모시 등의 작물을 섞어 심는다. 사료가치가 다르고 초장(작물 길이)이 달라 소를 방목 하거나 건초로 만들 때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다.

- 톨페스큐는 기호성은 떨어지지만 한 번 심으면 오래 지속된다. 오차드그라스는 소가 잘 먹고 생산성도 우수하지만, 습기에 약한 단점이 있다. 새 품종은 이를 보완해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기준 초지사료과장은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새 품종 오차드그라스를 육성해 이를 확대 재배하면 부실 초지에서 벗어나 한 번 조성으로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라며, “산지초지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고 생산성이 우수한 초지조성용 목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뿌리부추, 혼합부직포 피복 기술 개발

- 혼합부직포를 피복하여 재배한 뿌리부추 2.3배 수량 증가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뿌리부추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뿌리부추(삼채)는 단맛, 쓴맛, 매운맛이 나며 뿌리까지 먹을 수 있는 채소로 히말라야 산맥 해발 1,400~4,200미터 이상의 초원 지대에서 자생하며 단백질, 당, 섬유소 등이 양파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식이유효화합물이 마늘보다 6배 많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 그러나 재배상 여름철 고온기에 뿌리부추가 고사하여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뿌리부추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충북농기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상 2m 지점에서 75% 차광막을 만들어 주고, 지표면은 검정·흰색 혼합부직포를 피복하여 토양온도를 3~5℃ 정도 낮추어 주었다. 그 결과 생육과 품질은 좋아지고 생산성은 관행적으로 검정비닐로 피복한 것에 비하여 2.3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충북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박의광 농업연구사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재배기술을 부추재배농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해마다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 배지 개발 등 재배법을 확립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국산 파프리카 시대 온다!

- GSP채소종자사업단, 도 농업기술원 공동 추진 성과 -

- ‘국산 파프리카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 창조정부의 혁신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든시드 프로젝트(GSP)에 참여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맛과 품질이 우수한 미니파프리카 개발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GSP채소종자사업단(단장 임용표)이 경남도농업기술원 안철근 박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GSP파프리카 연구에서 나온 성과인 국산 미니파프리카는 라온 레드(Raon Red)와 라온 옐로우(Raon Yellow), 라온 오렌지(Raon Orange) 등 3품목으로, 지난 11월 4일 서울 성수동의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도 선을 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 또한 11월 24일 도농업기술원 ATEC온실에서 있었던 ‘GSP 국산 파프리카 신품종 현장평가회’에서는 채소종자사업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연구자와 재배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국산 파프리카 개발을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진척 상황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날 평가회에서는 지금까지 100%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파프리카 종자의 국산화 실현을 위해 품종 개발을 담당한 안철근 박사가 직접 품종 특성을 소개하고 생산 농가와 애로사항을 상호 교환하면서 문제점 해결에 접근해 가는 시간도 가져 생산농가들의 국산품종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 국산 파프리카 종자 개발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GSP를 통해 정부 지원이 활성화된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통선발과 시험 재배 등 품종 육성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소득안정 작목은 느타리버섯

- 연차별 소득 안정 작목은 느타리버섯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8개 작목에 대한 10년간의 소득변동에 대한 변이계수 비교분석 결과, 느타리버섯이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노지포도, 엽연초 등의 작목 순으로 연차별 소득 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 가을배추가 가장 소득변동 폭이 커 가장 불안정한 작목으로 분석되었으며, 고랭지무, 대파 등의 작목 순으로 연차별 소득 진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러한 소득 불안정 작목들은 연도별 농가 소득의 편차가 심하여 안정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운 작목으로, 이는 재배면적의 증감, 작황에 따른 생산물량의 증감과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의 등락폭이 심하여 경합 및 대체작목의 출하량, 외국농산물의 수입 물량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 10a당 평균소득은 시설가지가 11,36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느타리 버섯(재배상 330m²), 인삼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소득 작목은 595천원인 봄배추였으며, 고랭지무, 봄배추 등의 작목 순으로 분석되었다.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농장의 경영설계와 진단 및 농장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지도상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7. 정책 동향

◆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기간 연장

- 무안, 함평 재배농가 12월 4일까지 농협에 신청해야 -
-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으로부터 양파 재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의 가입기간이 당초 11월 27일에서 12월 4일까지 7일간 연장됐다.
- 전남도에 따르면 11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무안, 함평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에서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40농가에서 16.5ha 면적이 가입 됐다고 밝혔다.
- 이는 무안, 함평 양파 재배면적 4,479ha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 가입기간 연장을 건의한 결과 농가 가입기간이 오는 12월 4일까지 연장됐다.
-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금년 첫 시행하는 제도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가의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올해 가입대상 품목으로 전국적으로 양파와 포도, 콩 등 3개 품목으로 전남은 양파를 대상으로 주산지인 무안과 함평에서 시범 실시된다.
- 양파를 1,500㎡(450평)이상 재배하는 무안, 함평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가부담보험료도 국비50%, 도 및 시군비 3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산출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 양파4,500㎡(1,360평) 재배 농가에서 보험



가입금액 600만원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경우 농가 보험료는 10만 8천원 수준이다.

-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주는 종합적인 수입안정 제도다.” 며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가격하락 등의 위험에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농업 6차산업 체험관광 활성화 나선다.

- 전남지원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아카데미 운영 -
-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는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6차산업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5주간 총 10회 60시간에 걸쳐 ‘전남 6차산업 체험·관광아카데미’를 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 체험관광아카데미 교육 대상은 6차산업 인증경영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인, 귀농귀촌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등 40여 명이다.
- 교육 과정은 6차산업의 정책과 방향, 6차산업의 이해와 인증제도, 농어촌 체험관광과 도농교류 정책 방향, 농촌관광의 이해와 농촌 관광 경향, 농촌관광 설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진행 기법 등이다. 또한 농촌교육농장 소개, 농촌교육농장 사업과 운영 방법, 6차 산업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농촌관광 네트워크 전략과 농촌관광 상품화, IT교육, 사업계획서 프레젠테이션 작성법 발표 기술도 포함됐다.

- 특히 6차산업 체험·관광 추진에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농촌관광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실무 이론교육과 현장 중심의 전문 실습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 전체 교육과정 80% 이상 참석한 수료자에게는 우수 아이디어 제품화 지원(시제품 제작 등), 전남 6차산업 지원센터 현장 코칭 우선권 부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모전, 품평회 응모 시 가산점 부여, 특화분야(농식품관광 및 6차산업) 멘토단 자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장덕기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장은 “이번 특화교육은 체험·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뿐만 아니라 체험휴양마을에도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체험·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 134억원 지급

- 지급대상 농가 1,488천호, 농지면적 1,412천ha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년도 쌀고정·밭·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2월초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년에는 총 1,488천 농가(농지 1,412천ha)에 대해 1조 134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89억원(15.9%)이 늘어난 것이다.



- 사업별로 보면, 쌀고정 직불금이 777천 농가(841천ha)에 8,422억원이, 밭직불금은 546천 농가(464천ha)에 1,294억원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65천 농가(107천ha)에 418억원이 지급된다.
- 직불금 지급규모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금년부터 쌀고정 직불금의 평균 지급단가가 ha당 100만원('14 : 90만원/ha)으로 인상되고, 귀농인 등 신규 농가에 대한 신청요건이 완화되었으며,
- 밭고정 직불금(25만원/ha)이 새롭게 도입되고, 논에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을 할 경우 지급하는 밭직불금 단가가 ha당 50만원('14 : 40만원/ha)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급대상 농가와 농지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자신의 직불금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농가편의를 위해 농한기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15년 : 3~6월)를 한달 앞당겨 2월 초부터 4월말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 「창조농업관」 운영

- 아이디어·융복합·첨단 농업을 테마로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 「창조농업관」 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창조농업 성과를 전시한다.

* 창조경제 박람회 : 11.26(목)~11.2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및 A, C, D홀

○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를 비롯한 14개 부·처·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이 그 동안의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행사로 2013년 첫 개최된 이래 3번째다.

□ 농식품부는 “창조농업,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 슬로건 하에 아이디어 농업, 1×2×3 융복합 농업, 첨단농업을 3가지 테마로 「창조농업관」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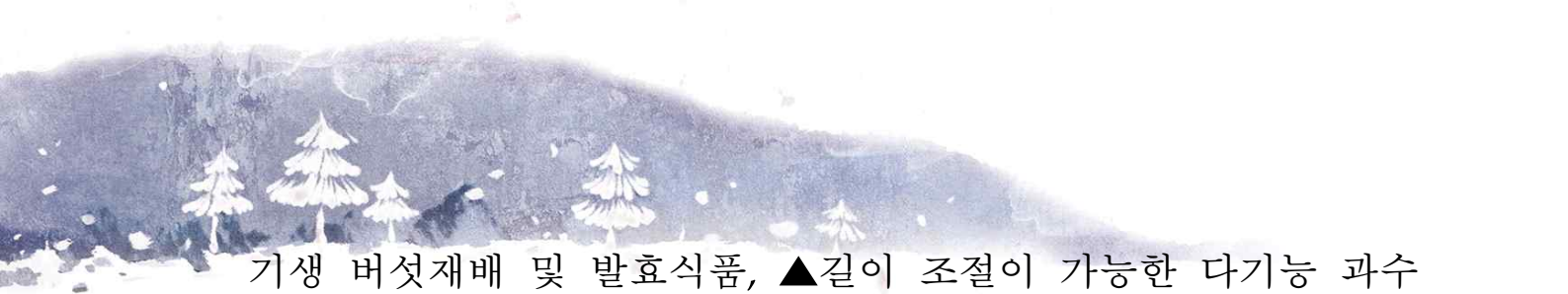
○ 「창조농업관」에는 각 테마에 맞춰 “농식품 창업 경진대회(콘테스트)” 우수 창업 아이템, 6차산업화 우수사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을 전시한다.

□ 먼저, 전국적 창업 붐 조성을 위해 실시한 “농식품 창업 경진대회(콘테스트)”에서 왕중왕전에 진출한 우수 창업 아이템 10점을 소개한다.

○ “농식품 창업 경진대회(콘테스트)”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지 5년 미만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예선-전국본선-왕중왕전 등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7월에서 8월 두 달간 총 990팀이 참여해 지역예선에서 55팀이 선발되었고, 이중 10팀이 전국 본선에 진출, 왕중왕전을 통해 대통령상 1팀, 국무총리상 1팀 등 총 5팀이 최종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 이번 박람회에는 ▲친환경 꼬마감자, ▲표고버섯배지 대량생산기술, ▲구운 단호박 파이, ▲유기농 발아오색미 활용 이유식, ▲옷나무



기생 버섯재배 및 발효식품, ▲길이 조절이 가능한 다기능 과수 지지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전국본선에 진출한 10점이 전시된다.

- 특히 친환경 꼬마감자는 유희기 벼 육묘장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소형 감자만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일반 감자에 비해 생산성은 5배가 높고, 생산비는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상금 1억원을 받았다.
- 현재 소형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감자 수확시 작은 감자만을 별도로 선별하거나 일반 감자 중 상처입은 감자를 깎아서 유통해야하는 등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 또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부터 체험·관광까지 연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 6차산업화 성공사례 8점을 소개한다.

-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성과사례를 포함하여, 여성·청년 등 생산 주체별, 식량작물·특용작물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로 구성하였으며,
- ▲오미자·어육고추장, ▲DMZ 파주장단콩초콜릿과 테마 관광상품, ▲곤충농장 박스팜 등 성공사례 총 8점을 전시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 원격제어를 통해 온실 내·외부에서 환경제어가 가능한 한국형 ‘스마트 팜’ 모형도 전시한다.

- ‘스마트 팜’ 모형을 통해 측창·천창 자동개폐기, 환기팬, 보광등, 로봇방제기 등을 원격조절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 스마트 팜이란 ICT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으로

- 언제 어디서나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이 가능해져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아울러, 농식품분야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 「창조농업관」 내 ‘창업·컨설팅 룸’을 운영한다.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와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전문가를 통해 투자상담,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농식품 관련 기술·창업·보육사업 등을 적극 안내하여 실질적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전시기간 중 「창조농업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매일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동안 간이 작물 생육 키트 1,000점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도 연다.

○ 이와 함께 농수산식품 창업 경진대회(콘테스트) 왕중왕전 진출작 10선, 한눈에 보는 귀농·귀촌사업,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등 다양한 농정현안에 대한 홍보 리플릿도 받아 볼 수 있다.

* 전시기간(4일) 중 평일 200점, 주말 300점 배포 (14~15시, 1시간)

□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창조경제박람회를 통해 창조농업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일본, IT기술 활용한 토마토 생산 효율화 실시

- 일본 식품기업 카고메는 IT를 활용한 농법으로 가공용 토마토생산을 실시함. 또한 NEC사와 연계하여 세계각국의 계약농장에 최적화된 재배방법을 도입함.
- 이는 인공위성 및 드론 등 농장에 설치한 센서로 수집한 기상정보 및 토양데이터를 분석하여 각국 농가 수확량을 최대화시키는 최적의 물과 비료의 배합 및 공급방법을 제안하는 것임.
- 먼저 해외 대규모농장에서 노지재배를 하는 가공용 토마토를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임.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향후 국내 토마토 농가 및 자가 농장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 카고메는 반제품을 포함하여 연간 약 100만 톤의 가공용 토마토를 조달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약 800개의 계약농가로부터 주스용 토마토를 조달하고 있음. 가공용 토마토는 포르투갈, 대만, 호주, 터키 등 해외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대규모 노지재배는 하우스재배보다 생육관리가 어려워 농가의 경험이나 기술에 의해 수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재배 노하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여 효율적인 재배기술 보급을 실시함.
- 세계적으로 가공용 토마토 소비량은 2000년에는 약 2,600만톤이었으나, 신흥국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2012년

에는 4,000만톤을 돌파하였음. 향후 2021년에는 소비량이 5,0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 케첩 및 소스의 원료가 되는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 가격은 10년 간 2배 이상 인상되었음. 카고메는 세계 3위의 케첩브랜드로 토마토 생산을 위한 주요산지 재배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수확량 확보를 위해 NEC사의 IT기술을 도입함.
- 가공용 원료로 쓰이는 농산물의 경우, 세계 주요산지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확량 확보가 안정적인 제품공급과 가격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IT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용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은 비교적 생산규모가 큰 농산물의 경우, IT기술을 접목시킨 공급량 안정화와 효율성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업체도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IT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프랑스 식품기업, 노년층 위한 다양한 식품 출시

-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23.7%에 달하는 1,500만명이 노년층임. 이에 마케팅전략 전문회사(Senior Strategic)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식품산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Respect Nutrition사 제품(Galettes Protibis)은 노인들의 영양실조를 방지하는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Vitagora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60%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음.



- 이 중 50%는 입원상태이고 나머지 10%는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이에 노인들의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특히 쉽게 뚜껑을 열 수 있으며, 빠르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식품, 미각을 잃은 노인들을 위한 식품 등이 있음.
- 또한 Cerelab사가 만든 고영양 빵(G-Nutritio)은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 유럽,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육가공식품으로 유명한 프랑스 식품기업 Charal은 노년층 소비자의 특징을 세분화하여 노년층을 포함하여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함.
- 또한 고영양의 먹기 쉽게 가공된 식품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트로피카나 항산화주스(Tropicana Essentiels Antioxydants), 미용기능이 첨가된 영생초코렛(chocolats Eternity) 등도 인기를 끌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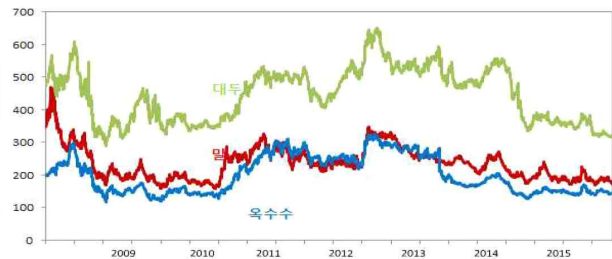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1. 30.(시카고 선물거래소)

달러화 강세 압박에 밀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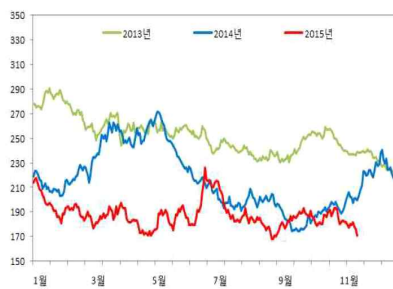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1.27)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0)	2014 평균
밀	171.08	▼2.8%	186	216
옥수수	141.41	▼1.9%	151	164
대두	320.77	▼0.3%	327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6년 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추수감사절로 인한 짧은 거래기간과 달러화 강세, 차주 많은 거래 예상으로 하락 마감함. Allendale사의 Bill Biedermann은 달러화 강세로 수출거래가 초추검 상태라 전했으며, USDA는 주간 미국 밀 판매가 303,700톤으로 예상했던 40~60만톤 보다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전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주간 예상보다 많은 200만톤 이상이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함. 중국은 곡물가공업자들에게 닥친 위기를 타파하고 세계최대 옥수수 비축량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가격을 절하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산업관계자는 전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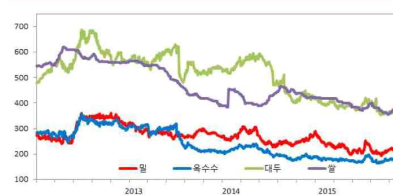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밀과 옥수수가격의 하락, 기술적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 마감함. USDA는 2015/16년물 대두 수출 주간 판매에 대해 1,173,600톤이 판매되었으며 예상했던 100~150만톤 수준이라고 전함. 대두박 또한 전망범위 수준이며, 대두유는 다소 하회하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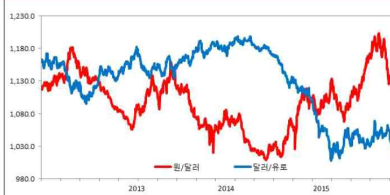
관련동향

●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둔화 우려, 리비아 유전 생산재개 전망,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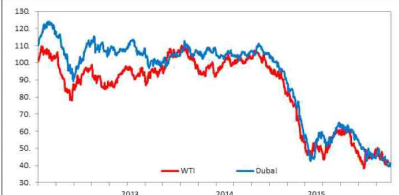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 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205	-		원/달러	1145.7	▲0.1%
	옥수수	169	-		달러/유로	1.0606	▼0.2%
	대두	350	-		WTI	41.71	▼3.1%
	쌀	365	-	국제유가 (US\$/B)	Dubai	40.37	▼1.4%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016년 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1.26(수출가격), '15.11.27(환율), '15.11.27(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우리 농산물 이름짓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하여 앞으로 널리 불려질 신품종(벼, 고구마) 이름을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5. 11. 25.(수) ~ 12. 4.(금) 18:00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공모분야 : 벼, 고구마
- 참여방법 : 온라인 활용 접수
 - 농촌진흥청(www.rda.go.kr) 및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www.nics.go.kr)
 - 트위터(twitter.com/cropkorea)
 - 페이스북(www.facebook.com/cropkorea)
- 결과발표 : 12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시상내역
 - 최우수 : 2점(품종별 1점, 각 30만원 온누리상품권)
 - 우수상 : 4점(품종별 2점, 각 10만원 온누리상품권)
 - 장려상 : 6점(품종별 3점, 각 5만원 온누리상품권)



고구마 : 목포87호

- 육색이 자색인 자색고구마
-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활성이 높음
- 기존 자색고구마 '자미', '신자미' 보다 찐고구마 당도가 높고 식미가 우수함
- 찐고구마 당도(브릭스): 목포87호(31.1), 신자미(25.9)

벼 : 밀양290호

- 흑미 유래 안토시아닌 생합성 유전자와 적미 유래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된 항산화 고활성 신품종 벼
- 기존의 단일 유색미 품종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항산화활성을 제공함
- 현미 중피색은 흑색과 적색으로 동시에 발현되지만 육안으로는 흑색으로 보임





주간

전남농업정보

62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